

**전일동향**

전일대비 1.50원 상승한 1,386.50원에 마감

29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1.50원 상승한 1,386.50원에 마감했다. 이날 환율은 NDF 달러-원 1개월물 하락을 반영해 전 거래일 증가 대비 2.00원 하락한 1,383.00원에 개장했다. 장 초반 환율은 일본 등 아시아 증시 강세에 1,378원대까지 저점을 낮췄다. 그러나 위안화 약세에 연동해 환율은 상승 전환하며, 1,386.50원에 증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장중 변동 폭은 8.5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06.51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(15:30)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383.00	1391.50	1378.60	1386.50	1383.10
엔화	903.42	906.88	899.53	904.04	-	
유로화	1497.22	1500.48	1491.06	1499.89	-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0.06	-4.6	-11.87
결제환율(수입)	0.1	-3.74	-10.08	-20.53

\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
\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 확인

**금일 전망**

미 구인건수 둔화에...1,380원대 초중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1.7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386.50) 대비 1.50원 하락한 1,383.25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 금일 환율은 미국 고용지표 부진 및 국채입찰 호조에 따른 국채금리 하락에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. 미 9월 JOLTs 구인건수는 744.3만건으로 예상치(800만건)를 하회했다. 9월 구인율과 구인배율은 모두 전월비 하락했다. 미 재무부의 7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2.74배로 6개월 평균치(2.63배)를 상회했다. 이에 미국 2년물은 4.40bp, 10년물은 2.80bp 하락해 각각 4.100%, 4.256%를 기록했다. 달러화는 약보합으로 마감했다. 한편 엔화는 가토 일 재무상의 환율 변동성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발언에도 BOJ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약세를 보였다. 미 국채금리 하락과 강달러 제한에 금일 환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. 수출업체 월말 네고 물량도 환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. 다만,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은 환율의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.

<b>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</b>	<b>1378.60 ~ 1388.20 원</b>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b>체크포인트</b>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1190.74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.50원 ↓
	■ 美 다우지수 : 42233.05, -154.52p(-0.36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03.8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5473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